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이 있다.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스테비아'로 한국 농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한국스테비아(www.koreastevia.com). 한국스테비아는 전북 정읍, 전주, 고창을 중심으로 농업, 의약, 식품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허브식물인 스테비아를 친환경 유기농자재와 농업, 축산용 제품, 기능성 식품으로 가공한다. 중요성에 비해 홀대 당하던 농산물의 브랜드화에 앞장서며 농민의 고수익원을 적극 개척하여 전라북도를 이끄는 한국스테비아의 정일환 대표를 만나본다.



한국농업에 희망을 심는 '친환경농법 전도사' 한국스테비아(주) 정일환 대표

Q. 대중에게 생소한 스테비아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스테비아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1년이다. 건국대 농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연수를 위해 일본 사이타마현 소재 스테비아연구소 견학 도중 블루오션 허브식물인 '스테비아'를 접하게 됐다. 스테비아가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일구는 품목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재배방법을 전수받아 스테비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할 수 있었다. 이후 전북 정읍을 중심으로 스테비아를 우리 환경에 맞게 토종화 하는 한편 다양한 친환경비료제품, 사료 첨가제, 식품용 제품으로 개발하는데 주력해왔다.

Q. 한국스테비아는 친환경작물로 지역 농가의 이익을 높이는 등 단기간에 지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가능케 했던 한국스테비아만의 강점은

시대적인 트렌드와 과소평가되었던 농산물의 브랜드화에 착안한 점이 한국스테비아 성장의 기반일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친환경과 웰빙이 화두가 되면서 다양한 효능을 가진 스테비아가 주목 받게 됐다. 아울러 회사의 미래 경쟁력은 일선 농민들의 손에 달렸다고 판단하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연구해 각종 특허를 획득하며 '스테비아'를 브랜드화 하였다. 농민들도 스테비아 이용 농법을 고수익을 내는 친환경농법으로 인식함에 따라 스테비아를 이용한 각종 농작물들은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해외시장개척에서는 전략적으로 먼저 농업분야부터 전력을 다해 수출 기반을 만들어 놓았고 최근에는 축산 및 식품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5년 동안 23개국을 다니면서 현장에 입각한 시장조사와 다양한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로 외국에서도 주문이 쇄도해, 2006년도에도 중국수출 2,500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일구기도 했다. 대규모 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해 원료기지 6,600만 m 정도를 중국 연길에 직영화하고 있으며 생산 공장은 해외시장 공략의 교두보인 중국 곡부시와 염성시의 1,2공장을 비롯해 전북 정읍 2공단에 국내 제 2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Q. 전북의 사업 환경은 어떠한지

현재 전라북도의 산업단지는 분양 받을 곳이 거의 없다. 그만큼 사업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친환경농업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농도인 전북이 안성맞춤이다. 새만금사업이 두바이에 버금가는 규모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형 국책연구기관이 정읍에 3곳이나 유치되어 공동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것도 호재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북도로 확정되면서 식품관련이나 생명공학, 원자력 방사선 연구분야의 발전 가능성도 매우 크다.

Q. 지방에서 기업경영 한다는 것은 어떤 인센티브와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지

수도권보다 기업체 수가 적은 관계로 오히려 지방정부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정부지원책도 기회가 많다. 그렇지만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고 시장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Q. 지방에서 벤처기업이 성장하는데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퀄리티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마케팅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도산하는 중소기업체들이 많다. 또 초창기 일정한 매출이 있기 전까지는 자금지원이 요원하다. 직원 연봉도 수도권과 약 30~40% 차이가 있기에 유능한 인력 구하기는 더욱 힘들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마케팅 분야 지원이 절실하다.



* 스테비아란 :

허브식물의 일종으로, 남미가 원산지로서 습지와 하천 등에서 70~120cm 크기로 자라난다. 설탕보다 당도가 200여배 높고 칼로리는 90분의 1로 낮아 감미 물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녹차에 비해 항산화효과가 5배 높으며 항(抗)바이러스 당뇨 치료와 혈당조절 능력도 탁월해 국내는 물론 일본과 서구 선진국에서 농업과 의학, 식품 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Q. 지방벤처CEO가 경영활동 시 꼭 유념해야할 조언이 있다면

꾸준한 정보의 탐색을 통해 시장경제의 흐름과 앞서가는 경영기법을 배웠으면 한다. 내 자신도 11년째 경제 신문과 전문지를 탐독하며, 사무직 및 연구원 모두 경제 전문지를 구독케 하고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정부 지원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정부지원분야를 총괄하고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도 보유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Q. 스테비아 응용 제품 시장의 현황 및 전망은

현재 스테비아 시장은 일본 등 몇 나라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가 대체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설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카콜라나 카길그룹사가 스테비아사이드 생산을 시작하는 등 앞으로 설탕대체 감미료시장과 친환경농자재시장은 몇 년 사이에 수 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건강식품 분야에서도 당뇨, 비만, 아토피 질환에 효능이 있는 만큼 시장이 다각화 되고 항산화작용이 매우 높아 녹차시장에 버금가는 스테비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사업을 하시면서 기쁨의 순간과 고통의 순간이 있다면

스테비아 농법으로 생산한 수박이 TV를 통해 전국에 소개될 때와 스테비아 허브밭이 롯데백화점에 진열 되었던 순간이 커다란 기쁨의 순간으로 기억된다. 반면 사업을 시작한 첫해에 에어컨도 없는 6인승 중고차로 8개월 동안 80,000km를 영업하면서 시골길을 누빌 때와 7살 난 큰아들을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11년 전, 어느 새벽에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주저앉을 수 없었다. 부모님과 또 다른 가족,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농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Q. 스테비아만의 독특한 문화나 직원 복지가 있다면

회사 전체 직원이 가족과 같은 분위기속에서 일하고 있다. 회사 신우회와 탁구동호회, 축구클럽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아쉬운 점이 많다. 퇴직한 직원이 회사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자발적으로 찾아와 도와주며, 새벽 2~3시까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바로 한국스테비아의 힘이기 때문이다. 사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우리사주가 꼭 보상을 받을 수 되도록 회사 상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 2015년 안에 정읍, 고창, 부안지역 내에서 급여가 제일 많은 회사를 만들 것이다. 아울러 2년에 한 번씩은 전 직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싶다.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성실히 일하고 있는 현장근무자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

Q. 정부에 전달하고픈 요구사항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다. 조금 더 바란다면 벤처기업들의 사업계획서를 통합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기관 설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국가적으로 유능한 사업이라고 확정이 되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생산 판매까지 지원이 이뤄지면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출업체는 해외전시회나 시장개척 때문에 공항을 자주 출입하는데 샘플을 통관할 때 검역원들의 사무적인 태도 때문에 출국할 때부터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수출실적이 한 번이라도 증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 증명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통관할 때 일사천리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수출상담용 제품에 대해서는 항공운임을 할인해주는 방법도 기업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 상장준비 등 많은 변화발전이 엿보인다. 2008년의 한국스테비아의 전망과 각오가 있다면

비료생산 국내 1위 업체인 남해화학과 식품용으로 우리 제품이 국내 대기업에 납품이 확정되는 등 회사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만큼 올해 매출 목표를 120억 원으로 잡았다. 또한 성공해서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015년에 100억 원 예산으로 정읍시에 어린이를 위한 스테비아 선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2020년에 중국공장 부근에 농업관련전문 대학을 세우고 싶다. 믿을 수 있는 대표 바이오벤처기업으로 거듭나는 한국스테비아가 되겠다.

스테비아처럼 푸른 꿈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일환 대표. 그의 애창곡은 홍세민의 "흙에 살리라". 회사의 운명을 농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그 곡을 좋아한다고. 최근 몇 년간 견고한 회사운영뿐만 아니라, 바이오기술이 꽃피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전주 우석대학교 의약생명공학과에 다시 입학해 전문성을 다지고 있다고 한다. "세계를 내 가슴 안에 품으며 전 인류의 건강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다"는 그의 말에서 국가의 경제를 키우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기업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